



눈부/김지원

홍부/라경자

극단희/김정애

각설이/신부귀

연출/김정애 기획/배양현 구성/송지윤, 신수방 안무/이혜영 전행/장준영, 조민수, 김한영

여성퓨전극단

# 마랑외기동보소

일시: 2011년 12월 28일(수) 늦은 7시 (1회공연)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사) 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 지회

후원: 부산광역시 BSO 부산문화재단 (사) 부산예술단체 총연합회

국제신문 부산 MBC KNN BBS 부산문화방송

부산 CBS

문의: (사) 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 지회 TEL : (051)644-5211, 418-3399, H/P 011-558-1490

본 공연은 2011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축사



최상운  
(사)부산예술단체 총연합회 이사장

익살과 해학이 한껏 묻어나는 2011송년기획 퓨전여성해학창극 '마당쇠 거동보소'의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창극은 반세기라는 긴 세월동안 서민들의 희노애락을 대변해오며 우리 문화와 내재된 전통을 예술로 표현해 온 전통종합예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퓨전여성해학창극 '마당쇠 거동보소' 또한 이러한 여성창극의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드높이고 아울러 대중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친숙하게 다가서는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무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해 온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성창극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시종일관 해마다 수준높은 창극작품을 선보이는 무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의 노력과 열의가 멀지않은 장래에 결실을 맺어 여성창극이 가히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종합예술로서 가일층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공연을 위해 노력해주신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회 김정애회장님과 전 출연진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이만 축사에 갈음할까합니다.

2011.12.28

## 인사말씀



김정애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여성창극의 새로운 발전적 계기와 전기를 마련해 줄 2011송년기획 퓨전여성해학창극 '마당쇠 거동보소'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는 5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성창극의 전승및 발전, 대중화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과 열의를 다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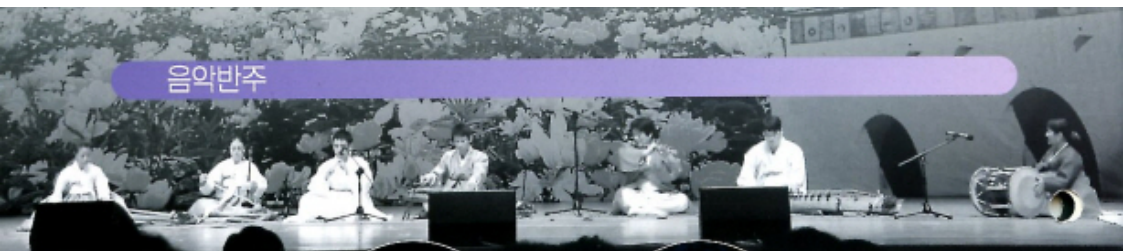
이번 공연 또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대표하는 여성창극의 가치와 발전적 계기를 한일층 드높이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마련된 뜻깊은 무대입니다.

고전소설 흥보전을 현대에 맞게 각색하고 연출하여 선보이는 이번 퓨전여성해학창극 '마당쇠 거동보소'는 새로운 여성창극의 발전적 가능성과 신선한 감동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사해 드리는 무대가 되리라 확신해 봅니다.

모쪼록 이번 퓨전여성해학창극 '마당쇠 거동보소'가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과 즐거움의 시간을 선사하는 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소망하며 이번 공연을 위해 시종일관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은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전 출연진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공연장을 방문해 주신 부산시민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 여성창극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부탁 드리며 이만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2011.12.28

음악반주



송재윤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부회장



김영애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이봉환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하정희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가이팅부장



조위현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무대진행



장준영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사무국장



조민수  
진행보조

출연진



이정하 / 도창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이사



조정례 / 놀보처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국극분과장



강명옥 / 흥보처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부회장



신수방 / 초람이페대장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이사



김현주 / 강남제비국왕후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부회장



권진희 / 풍각쟁이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이사



김명숙 / 삼꾼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곽은진 / 강남미인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이종희 / 흥보아들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이현주 / 흥보아들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김정애 / 마당쇠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장



라경자 / 흥보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창작분과장



신부귀 / 각설이  
법무부 한시당 봉사의 초대회장



김지원 / 놀보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배현숙 / 흥보큰아들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이사



박경남 / 양근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함순옥 / 삼꾼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이사



김화자 / 농부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차성미 / 삼꾼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이영미 / 농부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전우정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이은영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신아름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배유경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윤혜란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류지훈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김단경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장희지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김연주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천혜인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배희원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이혜영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무용분과장



박정옥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김경미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김미자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김미정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강지은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김정희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민요 분과장



김희진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서영숙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강인자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김순득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박정자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회원



## 즐거리

충청, 전라, 경상 삼도의 경계에  
형은 놀보라 하고 동생은 흥보라 하는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동생 흥보는 심성이 굽고 부모님께 효도하려 동기간에 우애가 깊으나  
형 놀보는 갖은 심술을 부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특히  
동생 흥보내외와 그 자식들에게 갖은 구박을 한다.

일동살한 추운 어느날 놀보내외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전답과 재산을  
흥보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고 흥보내외와 자식들을 빈 몸으로 내쫓게 되고  
이 모습을 본 마당쇠는 기지와 피를 내어 심술궂고 불인정한 놀보내외를 골탕먹이게 된다.

한편 꽃겨산 흥보내외는 겨우 끼니를 이어가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형 놀보를 찾아가 양식을 꾸우려다 놀보처와 놀보에게 갖은 수모를 겪고 돌아온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 흥보네 집 처마에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치지만  
구렁이가 새끼를 잡아먹고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되자  
흥보내외와 자식들은 다친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 주어 제비 새끼는 무사히 강남으로  
날아가게 된다

이듬해 봄이 되어 그 제비가 흥보의 집에 와서  
보은표 박씨 하나를 떨어뜨리고 흥보내외는  
이 박씨를 심어 박이 열려자 팔월 한기위가 되어 허가라도 면할까해서  
박을 타 보니 그 속에서 금은보화와 갖은비단, 목수가 나와 버락부자가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놀보는 이듬해 봄에 일부러 제비 새끼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  
놀보내외에게 봉변을 당한 그 제비도 이듬해 박씨 하나를 갖다 주어 이를 심게 된다.

놀보내외는 마당쇠와 삼꾼들을 불러 신명나게 박을 타보지만 박속에서는  
금은보화 대신 초란이패, 제비국 장수등이 나와서  
놀보 재산을 빼앗고 벌을 내리려 하지만  
심성고운 흥보내외는 형 놀보의 목숨을 살려달라 애걸한다.

결국 흥보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강남국 왕후는 놀보를 용서하고  
놀보는 개과천신을 한다.

